

1장 조선의 남녀는 평등했다 | 사임당의 시대인 16세기 조선의 풍경

성리학의 지배 이전, 차별은 없었다 · 17

사립파와 윤리 교과서 「소학」 · 20

남자는 경전 공부, 여자는 부덕^{婦德} 익히기 · 22

처가살이라는 혼인 풍습 · 32

친정 재산도 상속받고 호주 노릇도 한 조선의 여성들 · 35

세종대왕 며느리도 이혼하고 친정 재산 받았다 · 40

아들이든 딸이든, 친손이든 외손이든, 제사만 지내면 되지 · 47

2장 소녀, 뜻을 세우고 당호를 짓다 | 여성 군자의 꿈

어여쁜 우리 딸, 경전 공부하자꾸나 · 55

남편이 앓아눕자 7일 밤낮을 기도한 어머니 · 59

소녀의 꿈, “어떻게 살 것인가” · 69

소녀, 스스로 당호 ‘사임당’을 짓다 · 71

군자란 어떤 사람인가? · 78

일곱 살 고사리손, 안견을 본떠 그리다 · 85

3장 열아홉, 혼인, 그리고 여자의 일생 | 이원수와의 혼인생활

딸을 곁에 두고 싶은 아버지, 아버지 곁에 머문 딸 · 97

새 신부, 3년 만에 시어머니에게 인사 올리다 · 104

28년 한량 남편, 한없이 어진 아내 · 107

“제가 죽은 뒤에 당신은 다시 장가를 들지 마세요” · 115

율곡의 서모 권씨는 과연 악녀이며 주막집 주모였을까? · 126

언제나 강릉길 다시 맑아가 색동옷 입고 앉아 바느질할꼬 · 143

당나라 시인의 시구에 이별과 회한을 투영하다 · 147

4장 율곡의 어머니, 사임당의 아들 | 공자의 교육론에 토대한 자녀교육

- 4남 3녀의 다정한 어머니 · 157
태교는 인성교육의 첫걸음 · 160
사임당에게 지표가 되었던 공자의 교육론 · 165
내 부모를 먼저 섬겨야 한다 · 168
형제는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으니 우애로써 대하라 · 175
셋째 아들 윤곡, 100명의 친척들과 모여 살다 · 186
16세기 어머니 사임당, 뜻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라고 가르치다 · 189
믿음과 의리의 덕을 지키라고 가르친 사임당 · 194
여성의 4대 덕목 중 세 가지는 인격수양이다 · 198
사임당의 교육 방법론은 공자에게서 배우다 · 202

5장 청출어람, 청어람 | 개성적인 서체와 화풍을 추구한 사임당과 그의 자손들

- 사임당의 초충도, 그리고 나비의 비밀 · 213
포도와 물새, 물소에 숨은 예술관 · 228
조선초기의 서예와 사임당의 서체 · 236
'작은 사임당'이라 불렸던 큰딸 매창 · 244
시서화에 거문고까지 더한 막내아들 이우 · 252
맑고 깊고 웅건한 옥산의 거문고 가락 · 261
사임당의 손녀 벽오 부인 이씨의 그림 · 266

6장 일그러진 현모양처 신화의 탄생 | 사임당의 이미지 변천사

- 16세기, 당대 화가로 이름을 날리던 신씨 부인 · 271
"여자가 감히 산수화를?" 17세기 송시열 이후, 산수화 칭찬이 사라지다 · 277
18세기, 박제가 되어버린 '어머니'를 아십니까 · 280
사후 300년, 19세기 사대부들은 윤곡의 어머니를 내세우다 · 286
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현모양처와 '군국의 어머니' 가면 · 291
1970년대 이후 '현모양처'로 부각된 사임당과 모성 이데올로기 · 293
5만원권 초상화의 진실은 무엇인가? · 299